

시온 주보

제2431호

2023년 1월 22일(가해)

설

(하느님의 말씀 주일)

발행 **A**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성심 | 이남규 루키(1931-1993), 직경 150cm, 달드베르 스테인드글라스, 1937 수원교구 원곡성당

입당송 | 마태 28,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1독서 | 민수 6,22-27

화답송 |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 17~)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아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아옵니다. 아침에 돋어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

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제2독서 | 야고 4,13-15

복음환호송 | 시편 145(144),2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복음 | 루카 12,35-40

영성체송 |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 사회사목국 부국장

만나려면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말 또한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똑같이 보이지만 외모에 미세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성격은 더욱 차이가 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데에 있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설에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의 사연이 자주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까 봐 설에 아예 만나지도 않는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족이기에 서로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상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다 보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족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지내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잘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물며 나와 아무 상관 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당연히 나와 깊은 관계 안에 있는 가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깨어 기다리는 것은 아무리 종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의 마음 같아서는 주인이 언제 온다고 미리 언질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그건 종의 바람일 뿐입니다.

현명한 종은 자신의 바람대로 해주지 않는 주인을 원망하거나 나 몰라라 하며 기다리지 않는 종이 아니라, 언제 일지는 모르더라도 반드시 주인이 돌아오리라 믿고 기다리는 종입니다. 복음은 이 현명한 종의 기다림이 주인과 좋은 재회로 이어졌다고 전하며 마칩니다. 설 명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음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루카 12,40)

스테인드글라스 빛이 물든 사랑이 넘치는 공간은 우리를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강요와 과시가 없는 이 공간은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듯 만족과 평화로 가득할 뿐입니다. 하느님 품의 연장인 소박한 장소에서 언젠가 오실 주님을 맞이할 마음으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작품 설명



말씀의 이삭

오늘날의 '사도행전' 쓰기

“로사, 본당 25년사 좀 써볼래?”

2년 전, 가까운 신부님의 추천으로 어느 성당의 25년사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가라고 해도 방송 원고를 주로 썼던 제가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건 큰 도전이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25년 치의 본당 주보 공지사항을 꼼꼼히 다 정리해두신 편찬위원장님의 열정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본당의 25년사 편찬위원회 분들과 함께 역대 신부님들을 만나 취재했습니다. 그렇게 주보의 기록은 뼈대가 되었고 신부님과 신자들의 기억은 살이 되어 작업이 진행될수록 한 본당의 태동부터 가건물 신축, 성전 건립, 약자지결한 본당 행사들이 영상처럼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신자 수가 많이 늘어나 교구에서 본당을 많이 설립했던 그 시기에 이번에 함께 하게 된 성당도 시작되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진흙탕이 된 성당 부지에 간이 천막을 치고 첫 부활 미사를 드렸다는 초대 주임 신부님의 생생한 기억을 듣다 보면 저도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그 찬비를 맞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꼴을 갖추지 못한 공간이었는데도 성삼일 새벽, 할머니 신자분이 성체조배를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안타까운 일화를 신부님은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 위에 신부님과 신자들은 하나되어 벽돌 한 장이라도 더 날랐고, 주변 본당에서 봉헌해 준 성전건립기금으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성전은 완공됐습니다. 각자의 기억 속에 모래알처럼 흩어질 뻔했던 사실은 그렇게 한 권의 역사책으로 집대성될 수 있었습니다. 구요비 주교님께서 “본당마다 남기고 있는 25년사는 ‘오늘날의 사도행전’”이라고 축사에 남기신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 성장기 또한 사도행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 로사 | 방송작가

교구 문화홍보국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에서 방송 작가들과 함께 ‘주님께 다가가는 글쓰기’반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엔 수강생들에게 ‘나의 인생 써보기’를 꼭 해볼 것을 권합니다. 형식은 자유, 독자는 딱 한 분, 주님이십니다. 태어나기 그 이전, 부모님의 만남부터 오늘, 숨쉬는 이 순간까지를 세세하게 글로 펼쳐보면 실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드러납니다. 당시 세상을 강타했던 역사적인 큰 사건 속에서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하느님은 어떻게 해주셨는지 기록해보며 내밀하게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때로 마주하기 괴롭고 마음 아픈 일도 있겠지만 그 지점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화해하고 싶어 기다리고 계신 자리임을, 다시 새로운 구원이 펼쳐질 시작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큰 계획이 작은 내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체험. 바로 ‘나의 사도행전 쓰기’입니다.

환경 보전을 위한 원칙 중 하나는 토착민, 노인, 젊은이와 같이 생물 다양성 감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이들을 포함하여 취약한 환경에 있는 이들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한껏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 2022년 피조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님 담화문 중 -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그 설레던 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 번의 질문, 곧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큰 소리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때 말입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지요. “끊어버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죄를 끊고, 악의 유혹을 끊고, 마귀를 끊어버리라는 세 번의 질문에 역시 “끊어 버립니다.”라고 답합니다.

세례 때의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진리를 믿고, 하느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때 우리가 받았던 질문, 그리고 대답은 신앙이 단순히 머리로만, 즉 교리를 ‘외운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전체가 하느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말씀처럼 결단이요, 모험이요, 투신인 것입니다.

한편, 세례 때에 그리고 현재 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의 고백 형식도 있음을 살펴보는 것도 신앙의 이런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신경은 사도신경인데, 이 신경보다 오래된 신경으로 381년에 있었던 공의회에서 고백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에는 “우리는 믿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어가 바뀐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 두 표현은 서로 다른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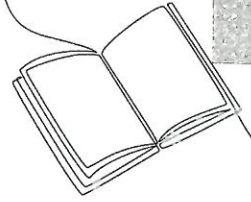
황에서 그리고 다양한 신학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주어가 “우리”였던 것은 공의회에서 모인 주교님들이 ‘함께’ 공동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신앙’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에페 4,5) 그래서 나의 신앙은 곧 교회의 신앙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나의 신앙은 교회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 신앙을 받은 것이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교회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언젠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성(姓)은 ‘교회에 속한’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원을 성명에 빚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나이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 하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반면 ‘나는 믿나이다.’라는 표현은 세례를 받을 때 사용하던 형식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고 바로 ‘내가’, 천지의 창조주,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누군가의 고백에 은근슬쩍 엮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나는 끊어버립니다.”라는 삶의 전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은 하나의 투신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인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사도행전 저자와 저술 목적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사도행전의 첫대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테오필로 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사도 1,1) 여기서 ‘첫 번째 책’은 루카 복음서를 말합니다. 이로써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루카 복음서의 저자인 루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루카가 두 권의 책을 썼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담은 루카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과 복음 선포 여정을 담은 사도행전이 그것입니다. 또한 루카가 사도행전 9장과 13~28장에 걸쳐서 사도 바오로의 행적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바오로의 선교 여행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오로의 편지도 루카가 바오로 선교 여행에 함께 했음을 알려 줍니다.[나의 협력자들인 마르코와 아리스타르코스와 데마스와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필레 1,24)] 한편 그는 팔레스티나 지리에 어둡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전통 유대인이기보다는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루카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긴 하겠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들은 1세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2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루카는 언제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그 시기를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략 유추를 해 본다면, 80~90년경 루카복음을 쓴 후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집필했

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90년경 그리스도교를 엄청나게 탄압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집필한 루카는 다른 복음사가들과는 다른 구원의 역사관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 교회의 시대(성령의 시대)에 따른 구분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하느님 구원의 역사를 ‘언약의 시기’(구약시대)와 ‘언약 성취의 시기’(신약시대)의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루카는 언약 성취의 시기를 다시 두 단계로 구분하여, 예수님의 시기(루카 복음서)와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이르는 중간 시기의 ‘교회의 시기’(사도행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드러냅니다. 이런 루카의 시대관은 복음 선포의 여정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사 마지막 파견 인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사제는 ‘미사가 끝났으니 복음을 전합시다.’라며 신자들에게 파견 인사를 합니다. 이 파견 인사는 ‘미사가 끝났으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서 시작되었던 복음 선포의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속되고 있음을 재인식시켜 줍니다. 사도행전에서 드러난 성령을 통한 교회의 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펼쳤던 복음 선포입니다.

구세주의 존귀하신 어머니 (Alma Redemptoris Mater)



〈아기를 안은 성모 마리아〉, 라파엘로



최호영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교수

수도원의 저녁, 그날의 마지막 기도(끝 기도 혹은 저녁기도)가 강복으로 끝나면 성모찬송가(Antiphonae finales B.M.V.)가 이어집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Beatae Mariae Virginis)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모찬송가는 전례력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구세주의 존귀하신 어머니'(Alma Redemptoris Mater)는 대림 제1주일 제1저녁기도부터 주님 봉헌 축일(2월2일) 제2저녁기도까지 노래합니다.

둘째로, '하늘의 영원한 여왕'(Ave Regina caelorum)은 주님 봉헌 축일(2월2일) 끝 기도부터 성주간 수요일 끝기도까지 기도합니다.

셋째로, '하늘의 모후님'(Regina caeli)은 주님 부활 대축일 끝기도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 팔부 금요일 끝기도까지 이어집니다.

넷째로, '여왕이시며'(Salve Regina)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제1저녁기도부터 대림 시기 전 토요일 제2저녁기도 전까지의 연중시기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부활 시기를 제외한 모든 전례 시기에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례 시기에 기도하는 '구세주의 존귀하신 어머니'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세주의 존귀하신 어머니
(Alma Redemptoris Mater,)

영원으로 트인 하늘의 문, 바다의 별이어
(quae pervia caeli porta manes, et stella maris,)

넘어지는 백성 도와 일으켜 세우소서.
(succurre cadenti surgere qui curat populo.)

당신의 창조자 주님 낳으시니, 온 누리 놀라나이다.
(Tu quae genuisti, natura mirante, tuum sanctum Genitorem.)

가브리엘의 인사 받으신 그 후도 전과 같이 동정하신 이여,
(Virgo prius ac posterius, Gabrieli ab ore sumens illud Ave,)

죄인을 어여삐 보소서.
(Peccatorum miserere.)

'강생의 신비'를 노래하는 이 기도문은 "온 누리 놀라나이다."(natura mirante)라는 구절을 통하여 하느님 계시의 위대함,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를 메우는 성모님의 신적 모성, 피조물의 마음에 담긴 신앙의 놀라움을 드러냅니다. 이에 대해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구세주의 사랑하는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이며,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해마다

마리아께 드리는 이 찬송가는 되돌릴 수 없이 계속되는 본질적인 역사적 변화, 곧 '넘어짐'에서 '일어남'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그 순간을 상기시킵니다... 교회는 ...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백성을 일으켜 세울 큰 과제를 떠맡고 있으며, 구세주와 그분의 어머니께 "저희를 도와주소서."하고 간청합니다."



구세주의 존귀하신 어머니
(Alma Redemptoris Mater)

QR코드를 통해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50년이라는 신앙의 역사 안에서...



제가 현재 머무는 성당은 1672년에 지어졌습니다. 작년 8월 14일에는, 본당 설립 350주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신자들과 성대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350년의 역사 안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성당이 무너진 때도 있었고, 독재 정권으로 인한 박해와 탄압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사제를 제외하고 모두 추방을 당해 약 30년동안 사제가 없던 시기에, 신자들은 독재 정권이 교회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성당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350년이라는 역사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론 중에, “350년 전에 누가 이 성전을 짓고 하느님께 봉헌하였나요?”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 의도는 350년 전 여러분의 조상들이 깊은 믿음으로 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였고, 그 신앙의 유산과 역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님께서 ‘당시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노예들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스페인 통치 시대에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식민지의 노예로 생활해야 했고, 그들이 가져온 신앙에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입장으로는 또 다른 박해였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의무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을 것이고, 강제 노동으로 커다란 돌들을 하



나하나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저에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첫 시작이 비록 노예 신분이었다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 강제로 노동해야 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지금 우리가 350년이라는 엄청난 역사와 신앙의 유산 안에서 믿음을 이어받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묵상을 신자들과 강론 때 나누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가꾸고 지켜온 그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앙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봉헌하는 미사를 통해, 성경 공부와 묵상 그리고 묵주기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신앙의 역사책을 한 글자, 한 글자씩 정성껏 적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고 마침내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저도 과테말라 신자들과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과테말라 선교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그린 성화를 성물방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사람 두 분이 그려져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들인가요? 왜 굳이 예수님만 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그려 넣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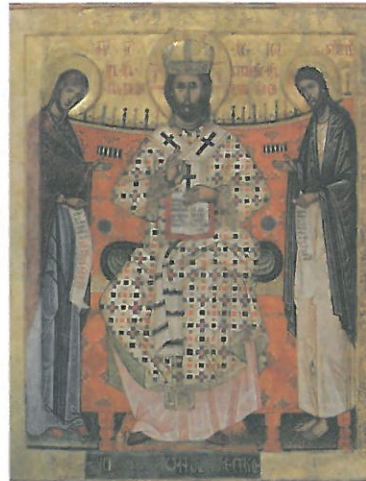
질문하신 분께서는 아마 이콘을 구입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콘이라 전제하고 설명을 이어가자면, 이콘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 교회 전통의 성화 양식입니다. 주로 예수님, 성모님, 성인은 물론 성경과 교리의 내용을 주제로 삼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체계를 갖추게 되는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아 구도가 다소 낯설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콘은 작가가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개인적인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영적인 요소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그림을 그릴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언어가 일정한 문법에 따라 조어되어 분명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콘도 등장하는 인물, 해당 인물의 위치, 사용하는 색 등이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린 이콘도 대표적이에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옆에 각각 성인, 성녀가 그려진 이콘을 데이시스(δέναις)라고 부르는데, '간척'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성인, 성



예수님께서 실제로 못 박히셨던 골고타 언덕 자리에 조성된 된 데이시스. 예수님 오른쪽에 성모님, 왼쪽에 사도요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님 무덤 성당)



'영광의 왕' 모습을 한 예수님을 그린 이콘. 성모님은 그대로지만, 예수님 왼쪽에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17세기경 작품. 루마니아 국립 미술관 소장)

녀가 예수님 밑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두 인물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있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성녀로 보이는 분은 성모님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오른쪽, 그림을 보는 교우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왼쪽에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는 시편 45장 9절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왕비는 오피르의 황금으로 단장하고 당신 오른쪽에서 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오른쪽에 계시다는 사도신경 구절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 교회가 오른쪽을 중요한 방

향으로 여겨 왔다는 점을 반영한 배치이기도 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왼쪽에 그려진 성인은 사도요한입니다. 이는 사도께서 골고타 언덕까지 따라가 끝내 예수님의 임종 순간에 함께 하였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셨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아닐 때는 사도요한의 자리에 세례자 요한을 그립니다. 또, 중세 이후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이 발달하면서, 해당 시기에 그려진 이콘은 사도요한의 자리에 요셉 성인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들의 배치는 이콘뿐만 아니라 성상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오늘(1월 22일)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하며, 하느님 말씀을 성찰하고 전파하도록 이날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1월 22일)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날은 설날 미사 경문으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1월 29일(주일)은 '해의 원조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993년부터 1월 마지막 주일을 해외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날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기아와 빈곤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형제적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과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4년 1월 23일 김정진 바오로 신부(82세)
- 2009년 1월 23일 홍인수 세례자요한 신부(67세)
- 2011년 1월 28일 이상훈 리노 신부(84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 · 수도회이거나, 서울대학교 사회사목국 · 서울대학교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내용 수정 · 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교구청 알림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26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3월3일~11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이주형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테레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1월26일(목) 19시,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학교 사회사목국 / 주관: 정의평화위원회
주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영원한 안식과 유가족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 문의: 02)727-2431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상담 봉사자 모집

지원대상: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가톨릭상담봉사자 3급 자격증 소지자, 심리학 · 상담심리 학사 이상, 타 전공자 중 영성상담봉사를 꼭 하고 싶은 신자 / 문의: 02)727-2126
파견분당: 서울대학교 가재울 · 시흥동 · 신내동 · 해화동 예정 / 모집마감: 1월27일까지(2월3일 합격자 통보)
신청안내 및 방법: 홈페이지(<http://seoulpc.catholic.or.kr>) 참조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학교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선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1월28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3층

갤러리1898 휴관 안내 / 문의: 02)727-2336

갤러리1898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1월3일(화)부터 2월7일(화)까지 휴관합니다

서울대학교법원 공식

아래 공시되신 분은 2월13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고영란 글라라, 송기아행(마쓰자키마사유키) 미카엘라파엘가브리엘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서울주보 코너 <가톨릭 교리 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너무 당연한 것을 묻는 것 같아 조심스러우셨나요? 다들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데, 나만 불경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셨나요? 서울주보가 답해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답해드립니다. 교리, 교회 상식 등 갖가지 궁금함을 서울주보를 통해 해결하세요.

참여 기간 2023년 01월 21일(토)~2월 19일(주일)

참여 방법 ①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접속(www.instagram.com/seoul_jubo)

② 서울주보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한다.

③ 이벤트 게시물에 궁금했던 교리, 교회 상식에 관한 댓글을 남긴다.

당첨자발표 2023년 2월 28일 | 당첨자에 한해 개별 연락

큐알코드로
참여하세요 ▶



가톨릭 교리 상식 서울주보에 물어보세요!

참여 기간 1월 21일(토)~2월 19일(주일)

*선정된 질문은 서울주보 코너 <가톨릭 교리 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게재되며, 참여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30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1월25일(수) 19시30분 / 대상: 남녀 청년
 곳: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B401호 / 010-7197-1390

17지구(강서) 성령기도회 초대 / 문의: 010-5513-9473

내용: 찬양, 묵주기도, 강의, 미사, 안수 / 강사: 손광배 신부
 때: 1월31일(화) 13시~17시, 우장산성당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때: 2월24일~25일·3월9일~10일·2월16일~17일
 (대전교구)·3월30일~31일(대구교구)
 출발: 전철 2·4호선 사당역 버스공영주차장

효순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1월27일(금)~30일(월)·2월3일(금)~6일(월)·2월
 24일(금)~27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2월 토요일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강사: 한철호 신부 / 문의: 010-6281-8626, 02)777-
 1773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때: 2월4일 12시30분~17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준비: 미사, 개인 식수

1박2일 무료 치유 피정(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때: 2월3일(금) 18시~4일(토) 15시(파전 미사), 청
 주교구 초정성령회관 / 버스운행: 17시 조치원역 앞
 신한은행·17시20분 청주고속터미널 앞(다이소 건너)
 문의: 010-4400-1344, 043)213-9103

제11강남지구 성령세미나 '일어나 가자'

강의·안수: 양홍, 박용일, 김인성, 홍성학, 김효성, 김일
 영, 김영춘, 이창진, 양창우 신부 / 문의(문자접수): 010-
 4667-3792 서 카타리나, 010-8694-3782 정 루시아
 때: 2월3일~3월31일 매주(금) 19시20분~22시
 (9주간), 역삼동성당 / 회비: 3만원(교재 포함)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사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눈꽃·자연순례: 1월28일~30일·2월9일~11일·2월
 13일~15일·2월18일~20일·2월26일~28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
 연 피정·성 이시돌 피정센터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성경완독	2월4일(토)~12일(일)	도미니코 피정의 집
말씀 피정	2월23일(목)~26일(일)	(주최, 황성)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
 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
 연 피정·면형의 집 피정센터

눈꽃산행	1월27일~29일, 2월4일~6일, 2월12일 ~14일, 2월18일~21일, 2월24일~26일
성지순례	3월12일~15일, 4월29일~5월2일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때: 1월1회, 도쿄·북해도·가고시마·나가사키
 문의: 010-3645-9028 송진옥 신부

교육

수제 목주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내용: 특강 및 미사 / 문의: 02)753-8765
 주제: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때: 2월5일(일) 13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 교육

때: 1월31일~2월14일 (화) 13시30분~16시30분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10주년 이벤트

내용: 설립 10주년 할인 이벤트
 회비: 일반 2만5천원, 단과 1만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CaFF영화제작워크숍 수강생 모집 및 영화 치유 미사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수강생 모집

때: 3월8일~6월17일 매주(수) 19시~21시30분(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 참조

2) 1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1월25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2023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추가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선교사(교리교사) 자격 수여
 접수: 2월14일(화)까지 / 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례 3년 넘은 견진자 입회 2년 넘은 수도자 타 대학에 적이 없고
종교교육 학과	주 4일 야간(2년)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모집

서울대교구국악성이 우리소리합창단 단원 모집

국악성이 함께 봉사할 단원 모집 / 010-8615-0402
 연습: 매주(월) 19시, 전철 7호선 강남구청역 4번 출구

가톨릭합창단 2023년 상반기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50대 남녀 교우 / 010-3211-5195 문자 문의
 오디션: 2월11일(토) 14시 /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공지 참조

미사

세계병자의 날 특별미사

주례: 유경춘 주교와 사제단 공동집전
 때: 2월11일(토) 오후 3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
 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을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사무실

평양교구 신우희 월레미사 / 문의: 02)727-2056
 때: 1월25일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교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1월27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홍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다섯째주(일) 1월29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도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
 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번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전·진·성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ijscen.or.kr

자아의 통합과 영성	대면강의 및 그룹훈련: 3월9일~6월15일 매주(목)
	치료적 강의 10시~11시30분·그룹훈련 오전 11시30분~오후 1시 / 회비: 학기별 45만원
	온라인 동영상 녹화강의 / 회비: 학기별 30만원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1월31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직원모집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사무원 모집

저희 수도회에서 함께할 사무원(회원관리 등)을
 모집합니다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채용시까지 이메일(johngod.kr@naver.com) 접수

서울대교구청 회계관련직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회계 관련 경력직 우대)
 분야: 회계 관련 담당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
 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2월5일(일)
 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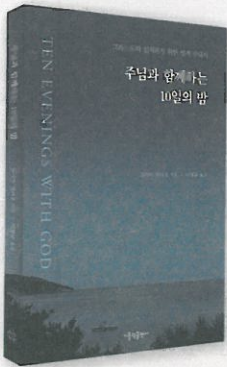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사 43,19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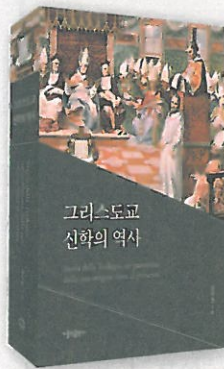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

일리아 델리오 지음 | 16,000원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한 영적 안내서

영성신학자 일리아 델리오 수녀가 이끄는 열흘간의 성찰의 밤

신간



그리스도교 신학의 역사

윤주현 지음 | 38,000원

그리스도교 신학의 시작과 현재, 진리의 역사를 탐구하다

교부신학부터 해방신학까지 한눈에 살펴보는 진리 탐구의 여정

새해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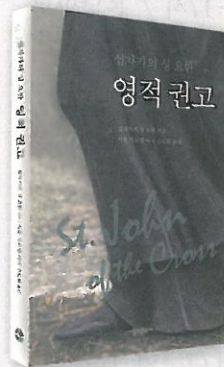
결정이 두려운 나에게

안셀름 그윈 지음 | 15,000원

안셀름 그윈 신부가 말하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결정의 힘

결정의 3단계를 통해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 가다

새해 추천 도서



십자가의 성 요한 영적 권고

십자가의 성 요한 지음 | 12,000원

바른 판단과 절제로 우리를 이끄는 성인의 조언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며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하다

새해 추천 도서



40일 성경 기도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12,000원

간절한 소망이 하느님께 닿는 40일간의 기도

노트엔 말씀을 새기고 마음엔 주님을 새기는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365일 묵상 시리즈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대하는 이달의 묵상: 치유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8,800원

여러분을 기쁜 묵상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한 달에 하나의 주제를 묵상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향하다



제2264(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언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로구 언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축 전승환 세례자요한 사제 서품 ✦

- 일시 : 2월 3일(금) 오후 2시
- 장소 : 명동성당
- ※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새사제 첫 미사 및 강복

일 시 : 2월 5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주례사제 : 전승환 세례자요한
※ 2월 5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주일학교 미사는 없습니다.

◎ 설 연휴 미사 안내

1월 23일(월)	미사 없습니다.
1월 24일(화)	오후 7시미사만 있습니다. (사무실 휴무입니다.)

◎ 정월대보름 한마당 잔치

일시 : 2월 5일(주일) 교중미사 후~17시 / 본당마당
대상 : 본당 전신자 및 성당에 관심 있는 이웃주민
문의 및 팸플리카(palanca) 접수 :
사목회 안드레아 총무 (010-4296-7070)
※ 2월 4일(토) 16시부터 주일까지 주차 불가

◎ 구역 미사 봉헌 안내

2월 9일(목)부터 7구역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구역미사를 봉헌합니다. 구역미사가 있는 날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월 9일(목) 오후 8시
장소 : 신민경 카타리나 자매님 댁 (7구역 1반장)

◎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목)은 주님봉헌축일로 매 미사 중에 초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제대초 봉헌	가정초 접수
1자루	8,000원	3,500원
신청	성당 사무실	성물방

※ 접수마감 : 1월 29일(주일)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결산 보고서(양식은 사무실에 비치)와 회계장부 및 영수증을 1월 29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여성구역회 기금마련 떡국떡·만두 판매 수익금.....1,880,000원
※ 도움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중고등부 주일학교 피정

주제 : '숨표'
일시 : 1월 27일(금) ~ 29일(주일)
장소 : 사도들의 모후 수도회 피정의 집
대상 : 예비 중1 ~ 고2
문의 : 프란시스 선생님 (010-5826-5785)

◎ 청년성서모임 새암성서 봉사자 모집

23년 봄학기 소그룹 나눔을 맡아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 2월 셋째주까지
대상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중 해당과정 연수를 마친 청년
문의 : 사도요한 대표봉사자 (010-3223-5747)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주님의 성찬에 함께 할 전례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프리모 단장 (010-9526-3217)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 15)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109	276 (13.1%)	181 (8.6%)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감사헌금 (1월 9일~15일)

익 명일십만원 익 명일십만원
익 명오십만원 박명숙오만원
익 명이십만원 장효경일십만원
홍동수일십만원 정은영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2주일)

교무금 7,434,000원
주일헌금 5,160,200원

입당	66	봉헌	217, 210	성체	156, 163, 502	파견	77
----	----	----	----------	----	---------------	----	----



주 하느님 의 어 지심 을 저 희 위 에 내 리 소 - 서